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창립

# 연륜과 경험의 힘 뭉쳤다



경남 지역에서 활동해온 불교복지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12월 13일 진주 동방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창립을 결의했다.

경남 지역 불교 복지를 이끌어온 주역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쳤다. 12월 13일 경남 지역에서 활동해온 불교복지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은 준비모임을 열고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창립에 뜻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서는 2005년 1월 20일경 창립법회를 열기로 하고, 초대회장으로 남해 화방동산 효천 스님을 추대했다. 정부나 도, 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원화된 정규역할을 담당할 경남불교사

회복지협의회는 복지에 뜻이 있어도 길을 몰라 막막했던 사찰이나 재가자들에게는 안내자로서, 힘을 모아야 할 활동에선 각 기관의 연륜과 경험을 한데 모으는 중심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지역 복지 연구, 조사 활동으로 복지발전과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 연구·조사로 복지 활성화 모색 합동체육대회·전시회 등 구상

“인적 자원은 내게 맡겨라” 기존 법인들의 오랜 연륜과 노하우를 신규법인에 제공하겠다” 등 이날 준비 모임에서 오간 대화들이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역할과 청사진을 대변했다. 특히 준비 모임 참석자들의 면면으로도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발전 가능성과 결속력을 짐작하게 했다. 결핵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 진

주 성양원 정혜 스님, 108 동자 키우기 원력을 세운 고성 보리수동산의 승욱 스님, 남해 불교복지의 개척자 화방동산 효천 스님, 새 생명을 주는 진주 감동심장회 불산 스님, 정신지체장애자들의 보금자리 거제 반야원 수행 스님 등이 뜻을 함께 했다.

이 밖에도 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중리사회종합복지관, 해인사 자비원, 통도사자비원 등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참여해 불교복지의 결속력을 과시하고 경남 지역 불교복지 인프라 구축에 힘을 보태게 된다.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는 창립에 앞서 향후 복지에 참여할 사찰과 설립 예정인 법인 파악에 착수했다. 뿐만 아니라 3월 중에 경남의 불교복지기관 합동 체육대회를 계획하는 한편, 복지기금 마련 전시회, 경남불교 복지대상 제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안 구상에 들어갔다.

회장으로 추대된 효천 스님은 “경남 지역 불교복지는 타 지역과 비교해 매우 활성화돼 있음에도 협의체가 없어 위상 정립이 늦었다”며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부산의 포교·수행·복지는 우리가”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가) 2백만 부산불자를 대표하는 신행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갔다.

그 밑그림에는 ‘부산불교신도회관 건립’이라는 장기 사업과 더불어 재정, 포교 교육, 복지 환경, 조직, 예술, 청년 등 분과별 2005년 신년 사업 계획안도 포함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2005년 1월 8일 롯데 호텔에서 신년하례회를 갖고

### 부산불교신도회 신년 사업 확정

### 단체간 인프라 구축·대표성 굳혀

2005년 1월 8일 롯데 호텔에서 신년하례회를 갖고 3월 중으로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부산 불자들의 숙원 사업인 부산불교신도회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부산불교신도회는 제1회 불교미술대전 수상작가 초대전과 CMS 후원단 결성, 신도회 신문 발간 등의 사업을 펼쳐며 재정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포교의 날 행사나 결식 이웃에 대한 급식 지

원, 기초생활품 지원, 난방 지원 등의 위기 가장 생활지원사업은 부산불교신도회의 복지 이념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주목된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부산불교신도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 부산 사찰의 신도회나 신행단체의 가입을 유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행, 저능단체 임원 연찬회와 각 신행단체가 참여하는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열어 부산권 신행단체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한 2월

로 확정된 현각 스님 초청 법회 등을 통한 대중 포교는 물론 99년까지 이어오다 잠시 중단되었던 ‘포교 대상’을 부활, 포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된다.

이옥대 사무총장은 “조직, 사업면에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지만 부산불교신도회가 부산불자들의 대표 조직으로서 불자들의 포교, 수행, 복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는 신도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해인총림 및 교구발전 위한 3차 토론회’

### ‘문화’ 사회 흐름 좌우... 전문성 강화

해인사가 ‘사회, 문화 포교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놓고 해인총림 및 교구발전위원회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12월 12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주지 현웅, 해인사 강원 강사 법진, 회람대 강원 경성 스님과 강원스님, 해인사수련회 박삼수 동문회장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회복지관 협회 발전 기획단장 현오 스님, 해인총림 및 교구발전 위원회 상임

안으로 해인사강원에 전문사회복지과정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면서 “강원스님들이 졸업할 때 전문 사회복지학사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택 스님은 해인사의 포교방향에 대해 성보 참배객의 체계적 관리, 해인사의 포교거점 구축 등을 제안했다. 스님은 “무엇보다 불자들에게 불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인사만이 가진 지적 자산을 키워야 한다”며 “해인사의 새벽예불이 큰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신 대표는 “문화가 사회 흐름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해인사가 소장한 ‘팔만대장경’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며 팔만대장경 축제를 위한 전담위원회 설치, 경관인경체험 프로그램의 상품화를 제안했다. 또한 문화재 해설문을 전통문화의 소중한 등을 일깨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교체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 “봉사는 참불자의 길”

### 불국토, 자원봉사자 시상



12월 13일 열린 불국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밤에서 대표이사 혜총 스님(오른쪽)이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이사 혜총)는 12월 13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2004 불국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불국토 前 대표이사 정관 스님 등 4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2004년 불국토 주요사업 보고, 우수자원봉사자·후원자 포상, 축하 공연의 순서로 이어졌다.

2004년 한 해 동안 불국토가 펼쳐온 각종 사업들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10대부터 80대까지 나이와 종교를 초월해 활동한 봉사자와 후원자 중 30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용호복지관에서 활동한

부산불교직접봉사회, 수지침사랑회를 비롯 개금복지관, 양정초소년수련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패를 전하는 시간이었다.

혜총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펴는 불국토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라며 “내년 한해에도 자리가타행을 열어가는데 함께 할까”고 당부했다.

천미희 기자

### ‘어린이 포교 지도자상’ 시상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예)는 한동안 중단됐던 어린이포교 지도자상을 부활, 12월 18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어린이 포교를 위해 활동해온 지도자에게 수여되는 2004 어린이포교지도자상 대상에는 마산 정인사 어린이법회 박인철 지도교사가, 원력상에는 제주 우리집이준숙 지도교사, 유육부 부산 여여선원 지도교사, 이명수 충남 각원사 지도교사, 이숙희 대구 성무일승사 지도교사, 정수연 경기 신홍사 지도교사가, 공모상에는 천불동 동호 부모애 협회는 풍경소리 정유택 천불동호 작곡가가 각각 선정됐다. 천미희 기자

### 불우이웃 위한 김장 담그기

화명복지관(관장 유정이) 펼친 부산 북구 지역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김장담그기에 화명신도시 아파트 부녀회 연합회와 화명 3동 새마을부녀회, 북구 장애인협회 후원회, 화명복지관 봉사자 등 120명이 나섰다.

12월 13~15일 운수사에서 1천포기의 배추를 다듬고, 절이고, 양념한 북구장애인협회 후원회 박상진 보살은 “장애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길 기도하면서 양념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부산지(지)원장 해도도 12~15일 2천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가 영도구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4백 세대에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 심우사 불교대 3회 졸업식

경남 거창포교당 심우사 불교대학(학장 심우이) 12월 13일 제3기 졸업생과 제4기 재학생 30여명의 졸업식 및 수료식을 가졌다.

해인사 총무국장 현호, 교무국장 재현, 해인승가대학 강사 월호, 중앙승가대학 강사 경성, 정토사 수련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행사에서 학장 심우 스님은 “많은 도움을 주신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해인사 강사 스님들께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배지선 기자



###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 “예수탄생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사진)이 열린 12월 11일,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앞에는 ‘예수탄생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스님과 불자들이 부르는 캐롤송이 울려 퍼졌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열린 트리점등식은 관음사 풍물패의 한마당 놀이를 시작으로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트리 점등, 총무스님 인사를, 가톨릭가 합창단과 사자후 합창단의 캐롤송 혼성합창 순으로 이어졌다. 글·사진=배지선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문화 산업지원센터

## 전통불교문화 산업지원센터기공식안내

한국불교 전통문화사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총괄기관이며 불교문화의 중심시설이 될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기공식을 봉행하오니, 무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2548(2004)년 12월 22(일) 오후 2시  
| 장 소 | 마곡사 한장(충남 공주시 사곡면 한암리)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한국불교문화사업단